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7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박희승 · 김준혁 · 한정애
이훈기 · 이건태 · 서영교
어기구 · 김원이 · 강유정
이개호 · 정진욱 · 위성락
조계원 · 전진숙 · 정준호
임광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2.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이유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u>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u>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 ---
<신설>	1. <u>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 기간</u>
<신설>	2. <u>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u>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

<u><신 설></u>	<u>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u> <u>그 주요 이유</u>
	<u>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u> <u>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u> <u>기간 및 사유</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